

박상현의 ‘맛있는 이야기’



남북정상회담과 냉면

어느 정도 예상은 했지만 기대를 훨씬 뛰어 넘는 반응이었다. 남북정상회담이 열린 4월 27일 하루 동안 전 세계에서 160만 건의 관련 트윗이 발생했는데, 이 가운데 ‘평양냉면’이 언급된 것은 10만 건이 넘었다. 미국 CNN과 일본 아사히 방송에서는 스튜디오에서 냉면을 만들어 진행자들이 시식하는 진풍경도 연출됐다. 일찍이 우리나라 음식이 이 정도의 이목이 집중된 사례는 없었다. 전 세계 외신과 각종 SNS를 통해 전파된 평양냉면의 광고 효과는 지금까지 한식 세계화를 명목으로 벌였던 모든 홍보 활동을 뛰어넘을 정도로 강력했다.

이처럼 판문점에서 열린 제3차 남북정상회담 최고의 화제는 단연 평양냉면이었다. 그리고 그 직접적인 수혜자는 전국에 있는 냉면집이다. 정상회담 이후 냉면집은 문전성시를 이루고 있다. 남북 경협 관련 주식들의 폭등이 미래에 대한 기대가 반영된 것이라면, 냉면을 찾는 군중의 심리는 ‘역사적 이벤트를 장식했던 음식을 먹고 싶다’는 보다 현실적인 욕구다. 아마도 올 여름 전국의 냉면집들은 사상 유례없는 매출을 올릴지도 모를 것이다.

기대 이상인 해도 이 모든 결과는 치밀한 전략 덕분으로 분석된다. 우선 평양 육류관의 냉면은 남북정상회담과 인연이 깊다. 2000년과 2007년 정상회담 당시 김대중 대통령과 노무현 대통령은 각각 육

류관에서 오찬을 가졌다. 이번 정상회담 만찬 메뉴로 선보인 신안군 가거도의 민어로 만든 민어해삼편수와 김해시 봉하 마을에서 재배한 쌀로 만든 비빔밥이 두 전직 대통령의 업적을 기리는 음식이라면, 두 차례 정상회담 모두 메뉴에 올랐던 육류관 냉면은 그분들이 못다 이룬 과업을 계승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다.

이를 구현한 방식은 의미를 더욱 극적으로 승화시켰다. 정상회담에서 만찬 음식은 주최 측에서 준비하는 것이 관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대통령이 특별히 육류관의 냉면을 요청했고 북한에서는 이를 수용했다. 냉면은 그 성격상 미리 만들어 둘 수 없는 음식이다. 육수와 고명은 미리 준비한다 치더라도 면만큼은 먹기 직전에 뽑아야 한다. 때문에 북한에서는 판문점 북측 지역인 통일각에 제면을 설치하고 육류관 요리사들을 대기시켰다. 만찬 시간에 맞춰 면을 뽑고 이를 평화의집으로 배달해서 식사를 제공하는 예행연습까지 했다.

이러한 노력 덕분에 이번 만찬에서 제공된 냉면은 김정은 위원장과 함께 분단이후 최초로 군사분계선을 넘는 음식이 되었고, 문재인 대통령은 분단 이후 최초로 북한 냉면을 배달해서 먹는 주인공이 되었다. 그리고 두 정상이 나란히 냉면을 먹는 역사적인 장면은 전 세계에 공개되었다. 내용적으로도 형식적으로도 타할

나위 없는 완벽한 이벤트였다. 대중들 사이에서는 ‘이제 평화의 상징은 비둘기가 아니라 평양냉면’이라는 이야기가 회자될 정도다.

분단이 고착화된 지 65년이 흘렀다. 이 오랜 세월 동안 남과 북은 이념적으로 정치적으로 그리고 경제적으로 전혀 다른 삶을 살아왔다. 당장 만나고 싶을 남한의 국민과 북한의 인민 사이에는 너무나 많은 이질적인 요소들이 산적해 있다. 이럴 때 돌파구가 필요하다. 음식은 동질감을 회복하는 매개체 역할을 한다. 같은 언어를 쓰고 같은 음식을 먹어 왔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최소한의 물꼬는 틀 수 있다. 그 역할에 가장 적합한 음식이 냉면이다.

냉면은 매우 독특한 이력을 가진 음식이다. 세계 각국에 다양한 국수가 존재하지만 냉면처럼 ‘차가운 국수’는 매우 드물다. 솥시 있게 우려낸 고기 국물과 겨우 내 맛이나 든 동치마가 결합되어 매밀국수를 푹은 음식이다. 척박한 환경을 이겨내기 위해 고안된 지혜의 산물이다. 냉면의 질긴 생명력은 분단이라는 비극 속에서도 굳건히 살아남았다. 북한에서는 역사 이후 최초로 군사분계선을 넘는 음식이 되었고, 문재인 대통령은 분단 이후 최초로 북한 냉면을 배달해서 먹는 주인공이 되었다. 그리고 두 정상이 나란히 냉면을 먹는 역사적인 장면은 전 세계에 공개되었다. 내용적으로도 형식적으로도 타할

들의 호구지책으로 시작해 실망민의 애환을 달래 주는 음식으로 뿌리내렸다. 그런데 워낙에 완성도가 높은 음식이다 보니 남한 대중들 사이에도 널리 퍼졌다. 냉면은 남한 사회에서 가장 열렬한 애호가를 거느린 대중음식이 되었다.

남과 북의 정상이 나란히 냉면을 먹는 모습에 환호하고, 오늘도 냉면집에 긴 줄이 늘어서는 것은 갑작스러운 현상이 아니다. 냉면이라는 음식이 가진 압축된 역사가 정상회담을 계기로 폭발했기 때문이다. 현재로서는 남한의 국민과 북한의 인민 모두의 감성을 자극할 수 있는 유일한 매개체는 냉면이다.

지금까지의 냉면이 분단의 상징이었다면 앞으로의 냉면은 평화의 상징이 될 가능성이 충분하다.

남북정상회담에 이어 북미정상회담이 성공적으로 개최되고 종전과 평화협정이 체결되면, 판문점은 더 이상 긴장과 갈등이 아닌 화합과 공존을 상징하는 공간이 될 것이다. 이곳에 육류관 분점을 비롯해 남한의 유명 냉면집들이 다 모였으면 좋겠다. 철책으로 두 동강 난 한반도가 냉면의 질긴 면발로 이어질 수만 있다면, 이보다 극적인 발전이 또 어디에 있을까?

(☞ 칼럼니스트)

※이 칼럼은 지역신문발전기금 지원을 받았습니다.

의료칼럼

발목 부상



박 영 훈 동아병원 관절센터 원장

기운이 오르면서 산책, 등산, 자전거 타기 등 야외 활동을 즐기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 더불어 관절과 근육이 경직된 상태에서 갑작스럽게 무리한 활동으로 부상을 입은 사람도 증가하고 있다. 이 중 몸 전체를 지배해주면서 다른 관절에 비해 사용 빈도가 높은 발목 부상 환자의 수가 상당하다.

발목 관절에서 특히 많이 발생하는 부상이 ‘발목 염좌’이다. ‘발목을 삐었다’ 혹은 ‘발목을 접질렀다’고 표현하는데, 의학적으로는 ‘발목 염좌’라고 한다. 뼈와 뼈 사이를 연결하는 결합 조직인 인대에 손상이 생긴 것을 지칭하는 발목 염좌는 발목을 삐었다면 후, 복사뼈 근처가 붓고 통증과 열이 발생한다면 의심해 봐야 할 질환이다.

발목 염좌는 초기에 치료하지 않으면 반복적으로 염좌를 발생시키고, 발목의 연골에도 손상을 입혀 결국 관절염으로 이어지게 된다.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발목 염좌(발목 인대 손상)의 경우 자가 치료(마사, 찜질, 보호대 등)로 대처하는 경우가 많고, 통증과 붓기가 가라앉으면 안치했다고 여긴다는 점이다.

따라서 발목을 접질렀을 때 복숭아뼈 부근의 통증이나 부종 등이 심한 편이라면 정밀 검사를 통해 발목인대 파열이나 연골 손상이 있는지를 확인하는 게 좋다. 발목의 손상 정도에 따라 적절한 치료를 진행하고 만성 염좌 및 관절염을 예방해야 하기 때문이다.

발목 관절염은 다른 관절과 다르게 구부리는 뚜렷한 특징이 있다. 첫째로 다른 관절들은 쓸수록 닳는 퇴행성 변화인 반면, 발목은 침묵의 관절이라고 불릴 만큼 증상이 심해지기 전까지는 견뎌만한 통증을 보인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병원에 방문했을 때는 이미 중기 이상으로 진행된 경우가 많다.

둘째로 관절염은 나이 들어 생기는 퇴행성 질환으로 여겨지지만 발목 관절염

앞에 나이는 그저 숫자에 불과하다. 발목은 다른 관절과는 달리 나이를 불문하고 남녀노소 누구나 쉽게 손상될 수 있으며, 여러 번 겪는 경우도 다반사이다. 가장 큰 문제는 반복적인 외상으로 인해 외부 충격을 흡수해 관절을 보호하는 연골 손상이 가속화된다는 것이다.

실제로 FAI, AOFAS 등 족부전문학회 및 SCI저널에 따르면 발목 연골 손상이 시작되는 주 연령은 10~20대로 매우 젊다. 따라서 발목 관절염 역시 30~40대의 비교적 젊은 나이에 발생할 수 있다.

발목 관절염은 발목 염좌나 골절의 후유증으로 인해 연골 손상이 진행된 외상성 관절염에서 가장 흔하게 발생된다. 외상성 관절염은 외상에 의해 골절이 발생하거나 관절 연골에 직접적인 손상이 가해져 관절 변형 및 관절 간격이 좁아진 후, 이차적으로 발생하는 관절염을 말한다. 발목 외상성 관절염 초기에는 발목 관절 주위의 통증이 가장 흔하게 나타나며 대개 운동이나 발목 사용 후처럼 체중을 실었을 때 증상이 심해진다.

관절이 붓거나 주변을 누르면 통증이 느껴지고 외상 후유증으로 관절면의 변형이 심한 경우에는 운동에 제한을 받아

거동이 불편하게 된다.

이처럼 발목이 외상성 관절염으로까지 진행했다면 치료를 받는 것이 좋다. 연골이 다 닳아 없어진 경우가 아니라면 관절 내시경 수술이 적합하다. 관절 내시경 수술은 피부에 5mm 미만의 구멍을 내고 가는 관을 삽입해 실시하는 수술로 절개 부위가 적어 통증이 적고, 회복 기간이 짧다. 연골이 많이 손상된 상태의 말기 관절염이라면 인공 관절 수술을 받는 것이 좋다.

최근에는 의학 기술이 발전하면서 인공 관절의 수명이 20년 가까이 늘어났으며, 수술 시에도 8~10cm로 최소 절개해 흉터가 많이 남지 않는 장점이 있다. 발목 연골 손상과 관절염으로 진행된 경우라도 초기나 중기에 병원을 찾는다면 큰 치료 부담없이 일상으로의 빠른 복귀가 가능하다. 발목에 무리가 가지 않게 충분히 휴식을 취하고, 보조기나 깁스를 이용해 여러 주 동안 발목에 체중 부하가 가지 않게 하면 증상이 가라앉을 정도로 회복될 수 있다. 만약 만성 염좌로 진행돼 인대의 재건이 필요하거나 발목 관절 안의 연골 손상이 심하게 진행된 상태라면 관절 내시경을 이용해 치료할 수 있다.

기 고

6·13 지방선거, 다산의 정신으로



한 국 환 광주교대 외래교수

지방선거 열기가 뜨겁다. 지난 4월 초부터 출판 기념회와 사무실 개소식, 출범식 등 다양한 행사들을 통해 지자체장과 지방위원의 입지자들이 지지의 직·간접적으로 호소하고 있다. 자신의 학력과 경력 등을 내세우고 경륜을 자랑하며 표를 요청하고 있다.

이런 선거 정국에서 필자는 다산 정약용 선생의 정신을 논하고자 한다. 다산은 당시 학자 군주이던 정조의 총애 속에 정치에 몸담았고, 그의 심성과 능력을 인정받은 왕은 항상 후견인이었다. 그래서 정조 당시에는 다산에게 큰 환관이 없었지만, 임금이 갑자기 세상을 떠나며 고난이 시작되었다. 정계에서 완전히 배제되고 천주교 대탄압사건(신유사건) 이후 주변 인물들

의 참화와 함께 다산은 18년 동안의 긴긴 갇힌 유배 생활이 시작되었다.

그 긴 귀향 생활 중에서도 빛나는 보석을 만들어냈으니, ‘고을을 다스리던 지방관들의 큰 가르침’이 되는 ‘목민심서’ 48권이 그것이다. 이처럼 다산은 비운의 유배지를 창조적 공간으로 활용하여 백성과 관리를 위한 저술에 여생을 바쳤다. 그는 한쪽 어깨가 마비되고 안경에만 의존하는 상황에서도 붓과 벼루에 의지해 저술을 이어갔다. 유배 생활 이후에도 자신의 학문을 마무리하여 실학사상을 집대성했다. 뿐만 아니라 평생 지은 책이 500권이 넘고 시도 2460편이라는 데는 고개가 숙여진다.

다산이 75세로 일생을 마칠 때까지 폐인이 되도록 저술에 몰두한 까닭은 무엇일까? 이는 인간 세상에서 ‘무엇이 옳고 그른가’를 후세에 꼭 남기고 싶었기 때문이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무릇 세상을 떠난 뒤에도 다산의 사상이, 가르침이 지금도 늘 회자되는 것은 그의 가르침이 동서고금을 거쳐 옳기 때문이리라. 그래서 6월 지방선거에 지역사회 일꾼으로 나선 후보자들은 다산의 다음과 같은 정신으로 임해야 하리라.

다산 선생은 실학을 집대성한 거목답게 세상을 보는 기준을 다음과 같이 정했다. 그 핵심은 세상 속의 삶의 기준으로, ‘시비(是非) 기준’과 ‘이해(利害) 기준’을 내세웠다. 시비 기준은 옳고 그름에 관한 것으로서 공적(公的)이고 객관적이며, 이해 기준은 이롭고 해로움에 관한 기준으로서 개인적이고 주관적이다. 그런 관계 속에 4가지 등급으로 나누었다. ‘등급1’은 옳은 것을 지키면서 이익을 보는 것, ‘등급2’는 옳은 것을 지키면서 손해를 보는 것, ‘등급3’은 그런 것을 지키면서 이익을 보는 것, 그리고 ‘등급4’는 그런 것을 지키면서 손해를 보는 것이다. 그런데 다산 자신은 스스로를 ‘등급2’로 평가했다. 이는 자신을 스스로 의인(義人)으로 평가했기보다는 대의 명분상 옳음을 끝까지 지키며 평생을 소신을 갖고 살아왔기 때문에 그것을 자식들에게 가르침으로 남기고자 편지글로 설파했는 것이다.

여기에서 ‘등급2’의 정신은 우리가 꼭 본받아야 할 것으로 본다. 그러나 공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들이 법을 지키며 공무를 수행하는 일은 당연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아 뉴스에 오르내린다. 즉 많은 공직자가 ‘등급3’과 ‘등급4’의 경우

로 처벌 받는 일이 많기 때문인데, 매년 부정과 횡령, 탈법과 편법 등으로 일그러진 모습이 선출직 공직자들에게도 많다는 것이 더더욱 문제이다.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 ‘부패 공화국’임을 확신하고 있지 않은가? 그들이 바로 서야 지역 사회가, 나라가 바로 설 수 있으며 더불어 살아가는 세상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이번 지방선거 기간에 다산의 정신을 논해보는 것이다.

지난달 남북 정상회담이 이뤄지는 등 한 반도에 화해와 평화의 훈풍이 불고 있다. 일제 강점기의 해방 이후 우리나라의 문제가 4대 강국의 이해 관계에 따라 결정되는 바극의 현실에 이제 총지부를 찍고 우리 스스로 나라의 운명을 결정지를 절호의 기회를 맞고 있다. 이번 6월 지방선거에서도 우리는 지역 사회의 발전을 주된 스스로 결정지를 기회로 맞고 있다. 지연과 학연, 혈연 등에 얽매이지 말고 오직 다산의 정신으로 활동할 인물을 선출해야 한다.

지방선거 후보자들은 “통치자는 백성을 위하는 일을 할 때만 존재의 이유가 있다”는 다산의 외침을 되새기고, 유권자들은 지역의 진정한 일꾼을 뽑아 후회하지 않았으면 한다.

社 說

포털사이트의 지역언론 기사 확대 시정되나

포털 사이트에 지역 언론 기사를 일정 비율 이상 게재하도록 의무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중앙과 지방 간 여론형성의 불균형을 바로잡자는 취지다. 민주평화당 정동영 국회의원은 그제 같은 당 박지원·장병완, 민주당 김창일·노용래, 바른미래당 주승용 의원 등과 함께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인 일명 ‘네이버-지역 언론 상생법’을 발의했다.

이 법은 인터넷 뉴스 서비스 사업자가 이용자의 동의를 받아 얻은 위치 정보를 바탕으로 해당 지역 언론의 기사를 일정 비율 이상 게재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아울러 포털에서 이용자의 성별, 연령, 조회 수 등 통계를 언론사에 제공해 기자들이 이용자 특성에 맞는 양질의 기사를 작성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 네이버의 경우 PC 기반의 ‘뉴스 스탠드’ 서비스에서 일부 지역 언론의 기사를 위치 기반으로 제공하지만 모바일에선 지역 언론 기사를 메인 화

면에 드러내지 않고 있다. 따라서 지역 언론사 뉴스는 직접 검색어를 입력하기 전에는 보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또한 포털 뉴스는 지역에서 발생한 주요 사건이나 긴급 재난에 대해서도 현장에서 빠르게 전하는 지역 언론 기사를 제대로 반영하지 않는다는 비판을 받아 왔다.

포털의 중앙과 지방 간 뉴스 서비스 불균형 관행은 여론 형성에도 쓸림을 초래할 수밖에 없다. 지방 분권 시대를 맞아 지역 언론의 역할이 갈수록 중요해지고 있지만, 포털사이트가 이를 외면하면서 지역 언론의 어려움은 되레 가중되고 있는 것이다.

게다가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을 계기로 포털의 뉴스 서비스 개편 여론이 높아지고 있는 만큼 지역 언론 기사 게재를 늘리는 게 더욱 절실하다. 여론의 다양성 확보를 위해서도 중앙이 아닌 지역의 관점에서 뉴스를 공급하는 지역 언론을 지역민들이 쉽고 편하게 볼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할 것이다.

밭일 나가던 시골 노인들의 안타까운 참변

그제 오후 영암군 신북면에서 발생한 대형 교통사고는 우리 농촌의 현실을 돌아보게 만든다. 밭일을 마치고 돌아가던 시골 어르신들을 포함 모두 여덟 명이 참변을 당했기 때문이다.

이날 들녘 일을 마치고 귀가하는 노인들을 싣고 가던 25인승 미니버스가 앞서가던 SUV 차량과 부딪치며 우측 가드레일을 뚫고 도로 밖으로 굴러떨어졌다. 이 사고로 인해 미니버스 탑승자 열다섯 명 가운데 운전자를 포함한 여덟 명이 사망했고, 일곱 명이 부상을 당해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이번에 교통사고를 당한 노인들은 알타리무 수야 내기 작업을 마치고 귀가하던 67~82세 할머니들이었다. 요즘 시골에서 농번기에 제때 일을 마치고 리먼의 국산인 근로자나 노인들에게 8만~10만 원 가량의 일당을 주고 작업을 진행해야만 하는데, 이농과 고령화로 영농철 일손 부족을 겪고 있는 농촌 지역의 현주소를 극명하게 보여 준다.

한편 이번 사고로 어머니를 잃은 한 50대 유족은 “어머니가 새벽 네 시 반부터 오후 여섯 시 반까지 점심과 사흘을 때를 제외한 시간 동안 밭에서 일을 해야 했다”면서 부당노동행위와 노동력 착취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경찰은 이러한 의혹에 대해서도 조사해야 한다.

그동안 영농철을 맞아 인력을 운송하는 차량은 ‘달리는 폭탄’이나 다름없었다. 새벽에 일 시작 시간을 맞추기 위해 과속, 신호위반, 곡에 운전 등을 일삼아 왔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영농철 4~6월이면 전남 지역에서 발생하는 교통사고는 매년 8300~8400여 건에 이르고 있다.

따라서 앞으로 경찰이나 행정기관에서는 영농철 인력 운송 차량의 교통위반 행위에 대한 단속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 또한 과속이나 졸음운전 여부 등 이번 사고의 원인을 정확히 밝혀 안타까운 참변이 또다시 일어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無 等 鼓

출퇴근길이면 지하철 역사에서 다양한 시(詩)를 만나곤 한다. 똑같은 시도 그날의 기분에 따라 다른 느낌으로 다가오는 게 신기하다. 오랜만의 서울 출장길. 전동차를 기다리며 무심히 시 한 편을 읽다가 습이 그 내려앉았다. 그날 만난 시는 바로 이 작품. 안도현의 ‘스며든다는 것’.

“꽃게가 간장 속에/ 반쯤 몸을 담고
 앉드려 있다/ 등판에 간장이 울컥울컥
 려고/ 꿈틀거리다가 더 낮게/ 더 바다 쪽
 으로 웅크렸으리라/
 버둥거리다가 꽃게는/
 어찌할 수 없어서/ 살
 속으로 스며드는 것을
 / 천천히 받아들였으리라/ 껍질이 딱딱
 부정과 횡령, 탈법과 편법 등으로 일그러진 모습이 선출직 공직자들에게도 많다는 것이 더더욱 문제이다.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 ‘부패 공화국’임을 확신하고 있지 않은가? 그들이 바로 서야 지역 사회가, 나라가 바로 설 수 있으며 더불어 살아가는 세상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이번 지방선거 기간에 다산의 정신을 논해보는 것이다.

지난달 남북 정상회담이 이뤄지는 등 한 반도에 화해와 평화의 훈풍이 불고 있다. 일제 강점기의 해방 이후 우리나라의 문제가 4대 강국의 이해 관계에 따라 결정되는 바극의 현실에 이제 총지부를 찍고 우리 스스로 나라의 운명을 결정지를 절호의 기회를 맞고 있다. 이번 6월 지방선거에서도 우리는 지역 사회의 발전을 주된 스스로 결정지를 기회로 맞고 있다. 지연과 학연, 혈연 등에 얽매이지 말고 오직 다산의 정신으로 활동할 인물을 선출해야 한다.

지방선거 후보자들은 “통치자는 백성을 위하는 일을 할 때만 존재의 이유가 있다”는 다산의 외침을 되새기고, 유권자들은 지역의 진정한 일꾼을 뽑아 후회하지 않았으면 한다.

光 州 日 報		The Kwangju Ilbo	
사창·발행·편집·인쇄인 金汝松		주필 李洪載 편집국장 金日煥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기1(일간)		우 61482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38	
대표전화 222-8111 · 220-0551(지사·지국(구독신청·배달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안내 (대표 FAX 222-4918)	경 제 부 220-0663 (FAX 222-4938)	경영지원국 220-0515 (FAX 222-8005)	문화사업국 220-0541 (FAX 222-0195)
편 집 부 220-0649	문 화 부 220-0661 (FAX 227-9500)	기획관리국 227-9600	업 무 국 220-0551 (FAX 222-0195)
정 치 부 220-0632	문화미디어부 220-0664	디 자 인 실 220-0536	서 울 지 사 02-773-9331 (FAX 02-773-9335)
사 회 부 220-0642	체 육 부 220-0697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사 회 2부 220-0652	사 진 부 220-0693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